

보도시점 (전 매체) 배포 즉시

‘2차 모두의 창업’, 최종 9.3만명 신청

- 비수도권 신청자 비율이 63.3%(5.9만명)에 달해 1차 대비 약 10% 증가
- 충북은 일반·기술 분야에서 1차 신청자 수 대비 약 15% 증가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학)은 중소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가 지난 8월 20일(목)부터 9월 17일(목)까지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92,838명(일반·기술 80,764명, 로컬 12,074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 기간(29일)은 ‘1차 모두의 창업’(51일) 대비 절반 가까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은 일반·기술 부분에서 1차 최종 신청자 수 1,469명 대비 15% 증가한 1,690명이 신청하여 한층 더 뜨거워진 창업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지역 곳곳으로 창업 열기가 확산되며, 비수도권 도전자의 참여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신청자(92,838명) 중 비수도권 소재 신청자 수(58,778명) 비율이 63.3%에 달해 1차(53.4%) 대비 약 10%p 증가했다.

청년층의 창업 도전 역시 증가했다. 10대(15.4%)와 20대(36.4%)가 전체 도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3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은 71.8%를 기록해 1차(68.0%) 대비 더욱 높아진 참여율을 보였다.

담당 부서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3-230-5330)
		담당자	주무관 이상인 (043-230-5334)

참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접수 상세 결과

□ 신청·접수 결과 : 총 92,838명 (일반기술 80,764명, 로컬 12,074명)

※ (누적 접수자) 3,590,063명 (회원가입 수) 284,917명 (9.17(목) 16시 기준)

- (연령별) 청년(39세 이하) 도전자는 66,764명(71.8%)으로 청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1차 대비 청년층의 신청·접수 증가(^{1차}68.0%→^{2차}71.8%)
- (지역별) 비수도권의 신청자는 58,778명(63.3%)으로 1차 모두의 창업 대비 지역의 신청 비중이 9.9%p 높게 나타남
- (재도전) '1차 모두의 창업'에 탈락한 재도전자 19,111명(20.6%) 신청

< '모두의 창업' 신청자 현황 >

구분		2차 모두의 창업		1차 모두의 창업	
		신청 수(건)	비율(%)	신청 수(건)	비율(%)
신청자	총 신청자	92,838	100.0	62,944	100.0
	재도전자	19,111	20.6	-	-
트랙	일반/기술	80,764	87.0	51,907	82.5
	로컬	12,074	13.0	11,037	17.5
연령	10대 이하	14,320	15.4	5,731	9.1
	20대	33,837	36.4	20,900	33.2
	30대	18,607	20.0	16,167	25.7
	40대	14,856	16.0	11,551	18.4
	50대	8,011	8.6	6,197	9.8
	60대	2,741	3.0	2,054	3.3
	70대 이상	466	0.5	344	0.5
지역	수도권	34,060	36.7	29,316	46.6
	비수도권	58,778	63.3	33,628	53.4